

좋다, 싫다가 없이 유행이기 때문에 좋다

유행(유행, fashion) : 풍습이나 관습에 대하여 일정 기간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양식을 자유로이 선택·채용·폐기함으로써 생기는 광범위한 사회적 동조행동현상을 유행이라 한다.

아이디어나 이노베이션(혁신)의 보급과정의 한 영역이다. 일반적으로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생겨나며, 그것은 일시적이며 덧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무시할 수 없는 변화로 느껴진다. 이를 채택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지나 관습이나 규범과는 달리, 사회적인 통제나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심지적인 압력으로 통제되고, 개인을 초월한 압력으로써 인간에게 다가온다. 주로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데서 성립하며, 가치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영향이 강화되면 문화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관습이나 규범의 테두리를 넘어서게 되는 일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행은 기업화·상품화되고, 자본의 이윤추구에 이용되는 것이 결점이다.

유행이라 함은 이상한 것으로 유행하게 되면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용인되어 버린다. 오히려 그것이 차밍포인트가 되어 버린다. 좋다, 싫다가 없이 유행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해버린다. 때문에 유행하고 있는 존재가 계속되는 것이 큰일이다. 예를 들면 텐셀은 박기모감이던가 희뿌연 색의 느낌이 차밍포인트일 것이다.

라이오셀 장섬유는 텐셀과는 형제관계로써 이들은 장섬유를 사용하고 있다. 라이오셀 바이렌팅은 단섬유 100%를 이용한 방적사라던가 혼방사, 폴리에스테르와의 장단복합사(폴리에스테르 장섬유를 신사로 하고 라이오셀 단섬유를 외측으로 배치한 구조) 등이다. 새롭게 등장한 이들 정제 셀룰로오스

옷감이 실추된 인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계산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일론 테피터의 경우, 폴리에스테르 실크의 경우, 플리트인 경우, 레이온의 경우, 실버 메탈릭의 느낌인 경우, 아무리 둘러보아도 인기의 연출과 소멸의 정경이 떠오르게 된다. 아웃 오브 패션화의 구배를 타인보다도 빨리 느끼고 일단락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패션 비즈니스의 재미있는 일로써 두려운 것도 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캐주얼(casuals)이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옷을 구분할 때 대략 크게 포멀 웨어(formal ware : 격식을 갖춘 옷차림)와 인포멀 웨어(informal ware : 약식의 옷차림)로 구분한다면 캐주얼은 인포멀 웨어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장 즉, 슈트의 까다로운 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편안하고 부드럽게 즐기기 위해서 평상시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옷차림이다. 캐주얼은 캐주얼 슈트(casual suit)를 말하는 것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의 스포티한 재킷과 스커트나 팬츠로 이루어진다. 20대의 젊은 직장인을 타겟으로 하는 정장 캐주얼에는 크게 타운 캐주얼, 캐릭터 캐주얼 등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타운 캐주얼은 신입사원을 타겟으로 하는 정장으로 보면 된다. 심플하고 편안한 스타일이다. 반면 캐릭터 캐주얼은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정장으로 패션감각과 자기 표현력이 높은 층을 주요 고객으로 한다. 착 달라붙거나 허리가 잘록하게 피트 되는 등 매우 튀는 스타일이다.

클래식(classics)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클래식은 많은 사람들의 의복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부합되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오래 유행이 지속되는 스타일을 말한다. 클래식 스타일의 예로는 전통적인 테일러드 재킷, 트렌치 코트, 버튼 다운 셔츠, 사넬 슈트 등이 있다. 셔넬 슈트나 카디건, 스웨터는 목둘레나 도련 가장자리에 브레이드, 구슬, 털 장식을 하는 등 약간의 변화는 있어

도 기본형태는 그대로 지속되는 클래식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다. 예를 들면 클래식 슈트(Classic suit)라고 하면 전형적인 슈트라는 의미로 남성복의 신사복과 디자인이 비슷한 전통적인 슈트를 말한다. 테일러드 슈트와 같은 뜻이다.

비지네스 슈트, 감색의 블래저, 코트, 와이셔츠 등은 우리가 몇 내기에 관심이 없던 나이일때도 자주 보아 왔던 옷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옷들이다. 이러한 옷에 사용하고 있는 이용하는 옷감도 자세히 보면 베이직한 원단으로 한상 우리들 주위에 볼 수 있는 정도로써 패션적인 면에서는 다소 경시되어 온 것이지만 옷의 가격은 값싼 시장 제품으로부터 기성복의 중저가, 백화점 등의 고가, 일류 디자이너의 초고가의 것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유명 디자이너의 테일러숍,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유명 상표의 제품, 대구에는 언제부터인지 붐이 일고 있는 밀리오레의 디스플레이, 서문시당, 난전에서 손바닥 치며 속칭 “뺨”치는 제품,제품의 격은 달리하더라도 그 원재료인 원단은 거의 외관을 같이 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생활하는데 평범한 옷을 입어 보통이라고 하는 외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저 평범하고 보통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사람일 것이다. 물론 눈에 띄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달리 보이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럴 때는 액세서리라던가 소품에 의하여 자기를 표현하는데 타인과의 차별화를 하는 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옷감의 질과 옷을 짓는 질로써 차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써 만일 울이라면 초고급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엑스트라 파인 울을 사용한 옷감으로 보다 좋은 옷을 짓는다.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나란히 있으면 길이 있는 색, 광택, 드레이프, 주름 등으로 옷맵시가 좋아 나란히한 옷과의 차이는 역

력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입고 있는 사람까지 품위 있어 보이게 된다.

앞서도 설명한 바 있으나 와이셔츠(white shirt)는 남자가 재킷과 내의 중간에 넥타이를 결들여 입는 남성용 중의(中衣)를 말하는데 영어의 화이트 셔츠에서 잘못 전해진 말이다. 이 셔츠의 깃과 소매부리는 재킷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큰 목적이므로, 상의보다 다소 길게 1cm정도 나와 있는 것이 정식이다. 셔츠는 내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오늘날의 와이셔츠의 기원은 이집트이다. 당시의 것은 직사각형의 천을 반으로 접은 관두의(貫頭衣)식이었고 남자의 속옷으로 사용되었다. 16세기경부터는 장식을 많이 한 겹의 복에 따라 셔츠도 화려해져 프릴·러플을 달아 착용하였다. 그 후 프랑스 혁명이 의복에 큰 변화를 가져와 19세기경부터 오늘의 셔츠 모양이 형성되었다. 1850년에는 풀먹인 커프스가 있었고, 60년경부터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커프스가 사용되고, 줄무늬·물방울무늬의 면셔츠도 나오게 되었다. 20세기에는 백색셔츠 외에 색상이 있는 셔츠가 나왔고, 깃도 부드러운 것이 사용되었다.

형(型)은 유행에 따라 변화하지만 여성복처럼 큰 변화는 없다. 다만 깃모양, 옷감의 무늬, 색, 재질, 포켓 모양, 커프스 모양, 스티치 방법, 단추의 숫자 등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재료로는 면·마·모·견직 외에 모든 합성직물이 사용된다. 빛깔은 백색이 대부분이고 옅은 색도 사용된다. 정장인 경우에는 무무천 또는 작은 무늬, 줄무늬의 것을 많이 입고 알로하 셔츠는 빛깔과 무늬가 화려하다.

예장용 셔츠는 풀먹인 별도의 깃과 커프스를 달고, 타운 셔츠·비즈니스 셔츠·스포츠 셔츠는 커프스가 싱글 또는 더블이며, 커프스 버튼과 단추를 겸용하는 경우도 있다. 깃도 표준형 외에 깃 끝에 단추가 달린 것, 핀으로 고정시키는 것, 별도의 깃을 붙인 것 등이 있고 깃 끝이 긴 것, 짧은 것, 등

근 것, 좌우 끝 사이가 넓은 것, 좁은 것 등이 있다. 와이셔츠는 몸에 꼭 맞출 필요가 없으며 목둘레와 소매길이만 측정하면 된다.

* 코트(coat) : 양복 겉옷의 총칭이다. 코트는 남성복의 상의 또는 여성의 테일러드 슈트의 상의, 여성·어린이용의 긴 상의, 외투, 즉 오버코트, 외피(外被), 극히 특수한 것이지만 페티코트나 스커트를 가리킬 때도 있다. 어원은 허술한 외의(外衣)를 뜻하는 게르만어의 “코초(kozzo)”에 있다고 하며, 중세 전기에 남년가 낮에 착용한 튜닉형(形)의 의복을 “cote, cotte”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중세 후기 이후에는 남자용 코트는 사실상 허리길이의 상의로 되었으며, 근세에 이르러 다시 길어져 몸에 꼭 맞는 무릎 길이의 코트로 변하였다. 현재의 신사복형이 된 것은 19세기 중기 이후의 일이다. 이와 같이 서양에서의 코트는 첫째로 남성복의 상의이며, 여성복을 가리킬 때는 남성복에 준한 옷형을 가리킨다. 이에 반하여 한국에서의 코트의 개념은 오버코트 또는 외피에 한정되어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이 경우의 코트는 오버코트나 레인코트, 또는 더스트 코트처럼 일반적으로 소매가 달린 겉옷의 총칭이라고 본다. 현재 한국에서 착용되는 코트는 용도·형태·소재에 따라 다종다양하나,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오버코트 : 겨울의 방한코트로서 보통 외투라 하며, 흔히 남성의 신사복, 여성의 슈트·원피스 위에 입는다. ② 스프링 코트 : 춘추용 코트라고도 하며, 춘추복 위에 입는 한국·일본 등의 독특한 호칭이다. ③ 톱코트 또는 토퍼 : 방한용의 상반신 코트이다. ④ 트렌치 코트 : 어깨덮개가 달린 더블형 방수 코트이다. ⑤ 하프코트 : 반(半)코트라고도 하며, 상반신에 입는 것으로 톱코트와 비슷하다. ⑥ 더스트 코트 또는 더스터 : 먼지를 막기 위한 코트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입는다. ⑦ 레인코트 : 방우용 코트이다.